

복식사 연구에서의 타학문과의 연계성의 현황

정 미 진 · 정 흥 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Present Posi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Mi-Jin Jung · Heungsook G. Chu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 Ang University*.

(2002. 1. 2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ave the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and to search for the advisabl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For this analysis, the data were included 124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from 1980 to 2001 March.

The followings s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five dominant interdisciplinary fields of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were identified: anthropology, art history, pop music, archaeology, sociology.
2.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has been actively approached in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3. The most frequently approached field of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of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was art history.
4. The period that has most variety interdisciplinary fields was the present age.

The studies of future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should be approached in more diverse areas of interdisciplinary way and time periods.

Key Words: interdisciplinary approach (학제적 접근), historical clothing and textiles (복식사), field (분야)

I.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의 서양복식사 연구는 의류학이 도입된 이래 다각적 주제와 방법론으로 변화·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서양복식사가 갖는 특성; 의류학내에서의 실용학문적 측면, 역사적 측면, 사회 현상과의 관계, 고증, 미적인 측면으로 인해 서양복식사는 한 학문영역내에서 머무른 연구를 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서양복식사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실용학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정찬진외, 1991).

학제적 접근이란 하나의 학문연구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의미하는데 특히 의류학내에서의 복식사 분야의 전문적 위치를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복식사의 광대한 연구주제를 살려 독창적 학제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제적 접근방법으로서 복식사의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식사에서 변천을 연구할 때 비학제적인 방법으로는 제목·주제가 한정적이지만 학제적인 방법으로 사회심리학 같은 분야를 도입하여 변천 요인을 주제로 한다면 더욱 다양한 각도로 연구 주제를 잡을 수 있다. 둘째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 분야만을 주제로 할 경우 연구 범위가 자칫 넓어져서 모호해 질 수 있으나 학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분야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주제를 얻을 수 있고 연구를 보다 다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그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하겠다. 세번째로는 실용학문으로서의 본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의류학으로서의 복식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복잡해지는 사회현상, 세계화 시대의 조류를 타기 위해서는 어느 학문 한 분야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인접학문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보안·협력함이 더 많은 해결책을 찾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서양복식사의 연구는 그 영역이 확대되는 실정에 비해 학제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서양복식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의 시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학제적 연구가 현대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 분야도 다양하지 않다. 시대가 급변하고 시대의 요구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학제적 접근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학문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 1월부터 2001년 3월 사이 복식지에 발표되었던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방법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복식사 연구의 질적 향상의 토대를 다지며 앞으로의 복식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길을 제시해보는데 있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서양복식사의 연구 주제는 어떠한 인접 학문 분야와 어떻게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서양복식사내에서의 학제적 연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연구 문제3;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는 어떤 분야들이 있으며 어떤 분야가 주로 주도하고 있는가.

연구 문제4; 서양 복식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시대에 관한 논문이 학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II. 연구 절차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연구의 대표적, 역사 깊은 학회지이자 복식사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고 있는 복식지를 채택하여 1980년부터 2001년 3월 사이 발표된 서양복식사 관련 논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이 때 다른 의류학 전문 분야(디자인, 텍스타일, 의복 구성, 마켓

팅)와의 구별을 하기 위해 시대적 범주가 정해진 논문만을 채택하였다. 총 124편의 서양복식사 관련 논문이 집계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학회지의 보다 많은 수의 논문을 가지고 양적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인데 이는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2. 분석유목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 유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대별 연구 주제와 타 분야 학문과의 연계성, 서양복식사내에서의 학제적 연구의 비중, 학제적 연구의 분야별 분포, 그리고 시대별 학제적 연구의 분포 측정이다.

첫째, 연구 주제와 타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의 예를 들기 위해 분류체계를 시대, 연구 주제, 저자, 발행 연도, 연계된 타 학문 분야로 항목을 나누었다.

1) 시대; 논문의 범위·배경으로 설정된 시대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리고 현대로 분류했다.

2) 연구 주제; 논문의 주제가 된 내용을 제목과 방법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3) 저자; 논문의 저자를 공동 연구자일 경우 모두 성명을 표기했다.

4) 발행 연도;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연도를 표기했다.

5) 연계된 타 학문 분야; 학제적으로 도입된 타 학문 분야를 대표적인 분야 미술사, 대중 음악,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고고학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서양복식사내에서의 학제적 연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논문 제목,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학제적 논문 구분 기준을 두었다.

셋째, 전체 서양복식사 논문 중 학제적 연구의 분야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각 논문의 연구 방법 부분을 파악하여 빈도가 높은 학문 분야를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 사회학, 대중음악, 기타로 분류하였다.

넷째, 시대별 학제적 연구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논문의 범위·배경이 된 시대를 고대, 중세, 근

세, 근대, 현대로 나누고 연계된 타 학문 분야를 미술사, 인류학, 사회학, 고고학, 대중음악, 기타로 구분하였다. 시대는 고대, 중세; 5~14세기, 근세; 15~18세기, 근대; 19세기, 현대; 20세기로 서양복식문화사(정홍숙, 교문사)를 근거로 분류하였다. 이 때 논문이 변천에 관한 것일 경우 시작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잡아 시대를 분류하였다.

3. 신뢰도와 분석유목

신뢰도 측정을 위해 서양복식사 관련 논문을 복식지에서 무작위로 20편을 발췌하였다. 그리하여 두명의 연구자가 각자 분석 유목에 따라 코딩하고 종합신뢰도는 일치 코딩수를 총코딩수로 나눈값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복식지에서 발췌한 서양복식사 관련 논문의 주제와 연계된 학문 분석 결과를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서양복식사의 연구 주제는 어떠한 인접 학문 분야와 어떻게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접한 다른 학문 분야는 크게 1) 미술사 2) 음악 3) 인류학 4) 고고학 5) 사회학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그 예가 되는 논문을 저자, 연도, 주제, 시대의 항목을 들어 제시하였다.

<표 1> 학제적 연구가 된 논문의 예

연계된 분야	연구 시대	연구자	발표연도	연구 주제
미술사	중세	김혜연	1994	프랑스회화와 복식
	근세	송수원, 김민자, 정홍숙	1999	궁정복식의 매너리즘
	근대	채금석, 양숙희	1981	아르누보와 현대복
	현대		1996	현대복식, 표현주의
대중 음악	현대	신혜영	1996	스트리트 패션
	현대	이지현, 정지은, 김수련, 엄혜정	1999	히팝 패션
	현대	유송옥, 한자영	2000	레게 패션
	현대		2001	대중 음악 스타
고고학	고대	정홍숙	1982	고대이집트 복식
	고대	오춘자	1992	고대 히브리인
	고대	김인숙	1980	고대인 머리
	고대	임상임, 류보영	2000	고대인 종교 복식
인류학	중세	최수빈, 조우현, 박형애, 정홍숙	2000	민족의 두식
	근세	선정희, 유태순	2000	신고전주의, 인도
	근세	송미경	1998	민속의상
	근세		2000	스코틀랜드 민족복
사회학	현대	손미희	1999	페미니즘과 복식
	현대	간문자, 박명희	1996	히피풍과 복식
	현대	최혜정, 임영자	2001	다문화주의와 복식
	현대	김영옥, 김인숙	2000	현대복식과 양면감정

1) 미술사를 근간으로 한 연구 주제

미술사는 의상의 미적 특성상 복식사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학문이다.

김혜연의 1994년 연구 논문은 14, 15세기 프랑스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미적 고찰에 관한 것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한 복식의 시대는 14, 15세기이다. 이 논문은 종교화의 성모상을 통해 복식을 고찰하였으므로 연구에 미술사를 도입했다 할 수 있다.

송수원·김민자의 1999년 발표한 논문 “후기 르네상스 궁정 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 양식”에서는 연구 배경이 근세가 되고 궁정 복식에 매너리즘 양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연구함에 있어 매너리즘 양식의 인체 표현과 복식 형태 중점을 두었다. 이 때 매너리즘 양식은 예술사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미술사에 근간을 둔 논문이라 하겠다.

정홍숙의 “아르누보 양식이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은 1981년 발표되었고 연구 시대는 아르누보 양식 자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이므로 근대로 분류했다. 아르누보 예술 양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미술사를 학제적으로 연계시켰다 볼 수 있다.

채금석·양숙희의 1996년 발표된 “20세기 현대

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는 1996년 복식지에 발표되었고 20세기 초의 예술사조인 표현주의를 살펴보고 현대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시대는 현대로 포함되고 도입된 학문이 미술사임을 알 수 있다.

2) 대중 음악

대중 음악은 현대 패션 중 주로 하위문화와 관련된 연구의 발생 배경에 등장하게 된다. 히팝 패션, 레게 패션, 펑크와 같은 패션 용어도 대중 음악 장르를 분류하는 용어에서 온 것이다.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영 패션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1996년 신혜영에 의해 발표되었고 스트리트 패션의 출현 및 형성을 살펴볼 때 대중음악의 영향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제적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한 시대는 현대가 된다.

2000년도에 발표된 김수련, 엄혜정의 “레게(Reggae) 패션의 디자인 연구”는 레게 패션의 형성 배경으로 레게음악의 출현과 대중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대중 음악과 연계성이 있고 연구 시대는 현대이다.

이지현·정지은의 1999년 논문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 패션의 발생과 변천”에서 서론에서부터 힙합(Hiphop)을 대중 매체, 대중 음악의 영향으로 밝히고 발생 배경으로 힙합 음악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 음악을 근간으로 한 복식사 논문임을 알 수 있고 연구 시대는 1990년대 이후로 현대이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대중 음악 스타의 패션 연출 특성에 관한 고찰”은 발표 시기가 2001년이며 유송옥·한자영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연구 배경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현대에 속하고 우리나라 대중 음악 스타를 음악 장르별 살펴보았으므로 대중음악이 타 분야 학문으로서 연계성이 있다 할 수 있다.

3) 고고학

복식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의상이 현존하는 것은 드문일이기에 벽화, 그림등의 예술품이나 유물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복식사에서 고증을 위해 고고학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정홍숙의 1982년도 연구 “고대 이집트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에서는 종래의 국내에서의 문헌적 자료의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 투탕카멘 분묘의 벽화나 유물의 실물 자료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증과 관련되어 있다. 연구 시대는 고대이다.

“근동지역의 복식 연구; 성서에서의 복식의 상징성과 고대 근동지역의 복식 연구”는 1992년 오춘자에 의해 연구·발표되어진 논문이다. 이 논문은 고대 히브리인의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문헌적 자료가 거의 없어 주변국가의 부조를 가지고 연구했다. 따라서 고증과 연계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연구 시대는 고대이다.

김인숙의 1980년도 발표된 논문 “서양 고대사회의 두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머리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주로 분묘 벽화나 부조, 조각에서 자료를 찾았다. 이는 연구 시대가 고대이며 고증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2000년도에 복식지에 게재된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 복식에 관한 연구”는 임상임·류보영에 의

해 연구되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남긴 유물 중 벽화나 인장, 조각품을 중심으로 성직자의 복식을 살펴보았으므로 고고학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류학

인류학은 지역별, 국가별 복식을 고찰할 때 용이하게 도입되는 학문 분야로 복식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수빈·조우현의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 두식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며 자료 수집에 있어 민속학자들의 연구와 민속 박물관 복식 자료를 사용한 점은 인류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연구 시대는 13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인데 본 연구는 처음 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세로 분류했다.

박형애·정홍숙에 의해 발표된 2000년도 논문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복식 문화에 미친 인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19세기의 신고전주의 복식 문화를 인도의 영향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인도의상의 프랑스로의 수용과정, 인도 의상의 생산 배경, 풍속 등을 연구하였으므로 인류학과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시대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이므로 시작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근세로 분류된다.

“문화이식 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은 선정희·유태순이 발표한 1998년도 논문으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속복을 문화 이식 현상 작용으로 보고 비교 분석했다. 이는 인류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연구 시대는 16~19세기로 근세에서 근대에 걸친 시기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작 시대를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세로 분류했다.

“Scottish Highland Dress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2000년에 발표된 송미경의 연구로 복식을 통한 Scotland지역 연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에 있어 현지에 거주하면서 민속조사방법론의 하나인 참여관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류학으로의 연계를 접근하였다. 연구 시대는 변천으로 근세부터 접근되었다.

5) 사회학

손미희의 1999년도 연구된 논문 “포스트 모던 패미니즘의 문화 현상과 패션”은 포스트 모던 패미니즘(postmodern feminism) 문화의 발생 배경을 사회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패미니즘 패션을 분석했다. 연구 시대는 현대가 된다.

1996년도 복식지에 실린 “저항 패션이 모 패션으로 전파된 현상에 관한 연구; 히피 풍을 중심으로”는 간문자·박명희 공저이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의 히피 문화의 저항성을 시대적 배경으로 사회 현상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당시의 패션과 모 패션으로서의 히피 풍을 살펴보았다. 연구시대는 현대이다.

최혜정·임영자 공저의 “20세기 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는 2001년도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 현상으로 일어난 다문화주의를 근간으로 패션을 살펴봄으로써 그 학제적 접근이 사회학임을 알 수 있다. 시대는 현대를 연구했다.

김영옥·김인숙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양면 감정”은 2000년에 복식지에 게재되었고 연구목적은 위하여 미학, 사회학 분야의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였음을 연구방법에 밝혔다. 따라서 사회학으로 학제적 접근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연구 시대는 현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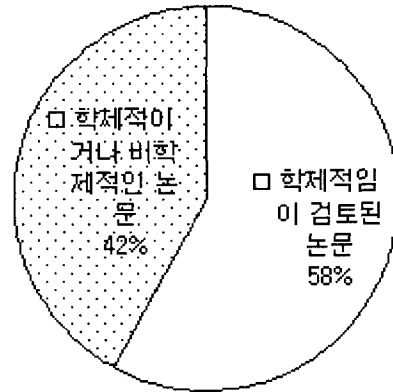
연구 문제 2. 서양복식사에서의 학제적 연구의 비중·위치는 어디인가.

서양복식사는 복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연구되어지므로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양복식사에 관한 복식지에 실린 논문 총 124편에서 72개가 미술사, 사회학, 인류학, 대중 음악, 고고학의 분류 기준 분야에 속했다. 따라서 최소한 이 분류에 속한 논문들은 확실하게 타 분야와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2개는 타 분야와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표 2> 에서와 같이 학제적인 것은 58%로 확실하지 않은 논문은 42%

로 나타났다.

<표 2> 학제적 연구의 비중



따라서 학제적임이 검토된 논문의 수가 과반수 이상임으로 서양복식사에 있어서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왔음을, 그 중요성과 비중이 크게 작용해 왔음을 동시에 파악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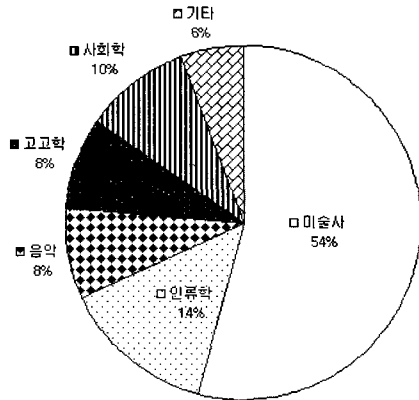
연구 문제 3.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는 어떤 분야들이 있으며 어떤 분야가 주로 주도하고 있는가

서양복식사에서 타 학문과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개념에 있어서도 다양해지고 보다 심도 있게 주제를 이끌어 나가고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타 학문으로 연구의 토대가 된 빈도 높은 분야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분류 기준은 연구 방법과 본문의 내용을 파악함이다. 미술사, 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대중 음악이 그 5가지 빈도 높은 분야이다. 그리고 2개 이하가 된 분야는 기타 영역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총 72개의 학제적 논문 중 39개가 미술사로 나타났고 10개가 인류학, 7개가 사회학, 6개가 음악, 6개가 고고학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4개이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미술사가 54%로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두번째는 인류학으로 14%, 세번째는 대중음악과 고고학으로 각 8%, 기타가 6%이다.

<표 3> 학제적 연구의 분야별 분포



따라서 학제적 연구의 모태가 되는 분야중 가장 우세한 분야가 미술사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의상이라는 분야가 미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복식사 논문 중 꼭 디자인에 중점을 둔 논문이 아니라도 의복의 형태, 라인, 색상, 디테일등의 복식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술이라는 학문을 도입하여야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둘째로는 복식사 연구 방법에 있어서 현존하는 의상이 없을 경우 회화, 벽화등에 나타난 의상으로 파악하므로 당시의 미술사와 관련이 깊게 된다.

연구 문제 4. 서양 복식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시대에 관한 논문이 학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전체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를 살펴보았을 경우는 미술사가 많았으나 시대별로 나누어서는 미술사가 아닌 다른 학문 분야가 우세하게 나타난 시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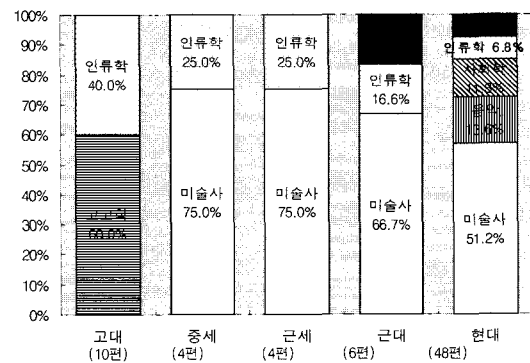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시대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분류하고 각 시대마다 나타난 연계된 타 학문 분야; 미술사, 사회학, 인류학, 고고학, 대중 음악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고대에 관한 논문 10편 중 고고학이 6편, 인류학이 4편으로 집계되었고 중세에 관한 논문 4편 중 미술사가 3편 인류학이 1편, 근세에 관

한 논문 4편 중 미술사가 3편이고 인류학이 1편으로, 근대에 관한 논문 6개중 미술사가 4편, 인류학이 1편, 기타가 1편, 현대에 관한 논문 48편 중 미술사가 30편, 음악이 6편, 사회학이 5편, 인류학이 3편, 기타가 3편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대별 학제적 연구 분포

<표4>시대별 학제적 연구 분포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4>와 같이 고고학이 60%, 인류학이 40%로 고대 시대의 10편의 논문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중세에서는 4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75%, 인류학이 25%로 총 100%를 차지했고 근세에서는 4편의 논문 중 미술사 75%, 인류학 25%로 중세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근대에서는 총 6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67%, 인류학이 16.6%, 그리고 기타가 16.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는 총 48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51.2%, 음악이 13.6%, 사회학이 11.6%, 인류학이 6.8%, 기타가 6.8%로 다양한 분포가 보여진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고대가 중세~현대와 학제적 연구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띄는 점이다. 다른 세기는 미술사가 압도적으로 연계된 학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대는 고고학과 인류학만이 나타났다. 이는 이 시대에서 나온 현존하는 의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때 무덤, 벽화, 미이라의 관, 프레스코화, 발굴 유적 등에서 자료를 의존해야 한다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신상옥, 1985).

현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제적 분야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들자면 우선 자료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이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 문헌이나 그림, 유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하여 데이터를 낼 수 있고, 영상 매체 등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야의 학문과 연계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IV. 결 론

이와 같이 지난 20여년간(1980년 1월~2001년 3월) 복식지에 발표되었던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방법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복식사 연구의 질적 향상의 토대를 다지며 앞으로의 복식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4가지 연구 문제를 들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복식사의 연구 주제는 어떠한 인접 학문 분야와 어떻게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연계된 가장 비중 있는 학문 분야 다섯가지가 나타났다. 미술사, 인류학, 대중 음악, 사회학, 인류학이 그것이다.

둘째, 서양복식사에서의 학제적 연구의 비중. 위치는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서양복식사에 관한 복식지에 실린 논문 총 124편에서 72개가 확실한 학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고 52개는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학제적인 것은 58%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42%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양복식사에 있어서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요성과 비중이 크게 작용해 왔음을 동시에 파악 할 수 있다.

셋째, 서양복식사의 학제적 연구는 어떤 분야들이 있으며 어떤 분야가 주로 주도하고 있는가에서는 총 72개의 학제적 논문 중 39개가 미술사로 나타났고 10개가 인류학, 7개가 사회학, 6개가 음악, 6개가 고고학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4개이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미술사가 54%로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두번째는 인류학으

로 14%, 세번째는 대중음악과 고고학으로 각 8%, 기타가 6%이다. 따라서 학제적 연구의 모태가 되는 분야중 가장 우세한 분야가 미술사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서양 복식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시대에 관한 논문이 학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고학이 60%, 인류학이 40%로 고대 시대의 10편의 논문에서는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중세에서는 4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75%, 인류학이 25%로 총 100%를 차지했고 근세에서는 4편의 논문 중 미술사 75%, 인류학 25%로 중세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근대에서는 총 6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67%, 인류학이 16.6%, 그리고 기타가 16.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는 총 48편의 논문 중 미술사가 51.2%, 음악이 13.6%, 사회학이 11.6%, 인류학이 6.8%, 기타가 6.8%로 다양한 분포가 보여진다.

우리나라 서양복식사의 연구는 그 영역이 확대되는 실정에 비해 학제적 접근 방법이 있어서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서양복식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시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학제적 연구가 현대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 분야도 다양하지 않다. 시대가 급변하고 시대의 요구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 모색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이는 복식사 연구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복식사 연구가 그 학제적 연구에 있어서 현대에 관한 것에 치중되지 말고 다른 시대에도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연계된 학문 분야도 복잡한 시대의 양상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로 시도.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식사 연구 주제·방법론에 대한 분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져서 인접한 분야와 구별되는 고유한 분류 기준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 간문자·박명희, 저항 패션이 또 패션으로 전파된 현상에 관한 연구; 히피 풍을 중심으로. 복식, 28(3), 1996, pp.239-253.
- * 김인숙, 서양 고대사회의 두식에 관한 연구, 복식, 3(2), 1980, pp.95-107.
- * 김수련·엄혜정, 레계(Reggae) 패션의 디자인 연구, 복식, 50(3), 2000, p.133.
- * 김혜연, 14,15세기 프랑스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미적 고찰, 복식, 22(3), 1994, pp.243-261.
- * 김혜경, 복식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 한국 의류학회지, 22(7), 1998, pp.952-962.
- * 박형애·정홍숙,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복식 문화에 미친 인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0(4), 2000, 21.
- * 손미희, 포스트 모던 패미니즘의 문화 현상과 패션, 복식, 46(5), 1999, pp.49-66.
- * 성화경·이옥희·유혜경, 한국 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한국 의류학회지, 18(5), 1994, pp.692-703.
- * 신정희·유태순, 문화이식 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복식, 41(7), 1998, pp.139-148.
- * 송수원·김민자, 후기 르네상스 궁정 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 양식, 복식, 42(2), 1999, pp.69-75.
- * 신상옥, 복식사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II). 대한가정학회지, 23(4), 1985, p.11.
- * 신혜영,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영 패션의 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27(2), 1996, pp.5-16.
- * 유송옥·한자영, 1990년대 이후 국내 대중 음악 스타의 패션 연출특성에 관한 고찰. 복식, 51(5), 2001, p.61.
- * 이지현·정지은,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 패션의 발생과 변천·복식, 46(5), 1999, pp.5-15.
- * 오춘자, 근동지역의 복식 연구; 성서에서의 복식의 상징성과 고대 근동지역의 복식 연구, 복식, 19(7), 1992, pp.175-194.
- * 정홍숙, 아르누보 양식이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 복식, 4(1), 1981, pp.25-37.
- * 정홍숙, 고대 이집트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복식, 6(8), 1982, pp.121-143.
-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 * 정찬진·박신정·황선진,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0-1990. 한국 의류학회지, 15(1), 1991, p.36.
- * 채금석·양숙희,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복식, 24(3), 1995, pp.121-142.
- * 최수빈·조우현,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 두식에 관한 연구, 복식, 50(1), 2000, pp.33-49.
- * 최혜정·임영자, 20세기 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2001, p.149.
- * Chowdhary, U., & Meacham, E., Changing Focus of Textiles and Clothing within Home Economics: An analysis of Two Professional Journa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 1983-84, pp.15-18.
- * Oliver, B. A., & Mahoney, M. Y., Th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An Empirical Examin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1991, pp.22-27.
- * Paoletti, Jo B., Does the Costume and Textile Historian Have a Place in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 1984, pp.33-36.
- * Trautman, P. & D. Bartsch, Probate Documentation: American Costume History Research.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1988, pp.26-36.